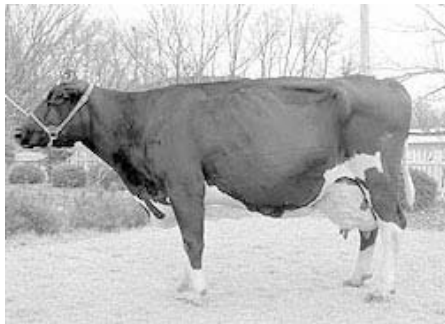


■ 슈퍼 젖소 탄생



일생동안 무려 13만9000kg의 우유를 생산한 젖소가 국내에서 탄생했다.

이 젖소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우량 젖소 산유능력평가대회 출품된 우량 젖소 13만8000마리중 가장 우수하다고 선정된 소로 경기도 양주군 소재 연산목장(경영주 김삼용진)의 '연산 5-237호'이다. 1993년 태어난 이 젖소가 생산한 우유량은 200ml들이 69만5000개에 달하는 양으로 현재 전국 초등 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62만6000명 모두에게 한개씩 공급하고도 6만9000개가 남는 양이다.

■ 국내 젖소검정우 세계 4위 등재

국내 젖소검정우가 지난 산유능력은 전 세계에서 4위에 등재됐으며, 10년전 보다 약 10배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부·농협 젖소개량부가 지난 2월 27일·28일 양일간 천안소재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05 우유군검정사업평가대회'에서 입증됐다.

지난해 추진한 젖소검정사업실적은 3천9백 10농가·13만7천9백91두로 전국의 8천9백 23농가·27만3천6백81두(경산우) 대비 각각

43.5%·50.4%를 점유, 10년전 4.2%·7.2%에 비해 각각 10.3배·7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검정우의 산유능력은 3백5일 보정 2005년 9천14kg으로 일반 농가 7천4백17kg에 비해 1천5백97kg이나 많아 전국의 검정농가 추가 유대 수입은 1천5백 40억4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검정성적은 5년전인 2000년 8천86kg대비 9백28kg이 증가하고, 10년전인 1995년 6천8백68kg에 비해서는 무려 2천1백46kg이나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 한우 둔갑 수입쇠고기 적발 가능해져

한우고기와 젖소고기 판별에 이어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판별이 가능한 유전자 마커 기술이 개발, 특허출원됨으로써 소비자와 한우사육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이번에 개발한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판별기술은 단일염기서열 다형성(SNP), 북방형(Bos taurus)과 남방형(Bos indicus), 그리고 초위성체 마커(MS) 17개 등을 이용해 한우 1천7백36두 그리고 수입쇠고기 1천3백16점의 시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한우와 수입쇠고기로 99% 이상 정확한 판별 성공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 DDA·FTA 개방대응 기금 조성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3월 28일 DDA/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가칭)농촌사회안정화기금'과 같은 특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지금 농촌사회는 수입개방의 확대와 고령

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공통체적 성격의 특별기금 조성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119조 투자와는 별도로 FTA특별법을 통째로 바꿔, 숫자 조정으로 농민을 현혹시키는 눈 가리고 이용하는 식이 아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얼마 전 또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만큼 정치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과학은 과학으로 판단하는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광우병 검역 지침이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면밀히 파악, 국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검역지침 자체를 국제수준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 DDA협상 난항, 회원국간의 입장차 커

DDA 농업협상이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세부원칙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이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열렸으나 4월말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1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핵심쟁점 사항을 놓고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4월말까지 완전한 세부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민감품목 개수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 ■ 한·미FTA 대응체제 재정비 '탄력'

농림부가 FTA/DDA 등 현안 대응을 위한

한·미 FTA대책반 구성 운영을 강화하고, 농정기관 역할 분담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체제 재정비를 위한 고삐를 당겼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3일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등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기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맞춤형농정, 우수브랜드육성,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방안, 농식품 안전성 제고방안,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방안 등 올해 추진할 농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정기관간 농정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처럼 각 농정기관의 간부들이 모두 모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부는 한·미 FTA 대책반 구성을 계기로 한·미 FTA에 대응한 범정부적인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보다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 한우 가격 '600kg 기준' 발표

한우 산지·도매가격 통계가 현 실정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특히 그간 산지가격의 경우 500kg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600kg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한우전체 도매 가격으로 간단히 표시하던 것을 등급별 가격으로 세분화시키고, 경락가격도 농가수취(생우)가격으로 환산해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격은 쇠고기 하나로 발표되던 가격을 한우와 수입육의 가격을 구분해 발표하기로 했다.

## ■ 축단협 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재추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축단협은 올해로 임기만료된 회장에 현 남호경 한우협회장을 재추대하고, 축산관련단체들이 일사분란하게 축산 현안에 대응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같이했다. 축단협은 특히 한미 FTA와 관련, 축산관련 단체중 최소 3~4개 단체가 '한미 FTA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키로 함으로써 축산단체가 소외되지 않은 가운데 축산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장에 재추대된 남호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축산 현안들을 앞두고 다시 축단협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 축산업계가 모두가 의지를 다지고 힘을 모아 한미FTA를 저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회원단체들의 어려움을 듣기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말하고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 ■ 축산분뇨 활용 자연순환형 농업 시급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형 농업이 중요하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이 지난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는 자연순환형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의 청중토론에서 김병태 교수는 "법만 잘 만든다고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2조6천6백7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생산현장은 빨리 도입, 확산되길 바라고 있기에 우리는 바쁘다. 유기질 비료 총230만톤을 점차 확대공급 한다는 것도 더 빠르게 적용돼야 한다. 축산분뇨를 비료자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 국내에도 축산분뇨 저장조 시설이 잘된 곳 몇 군데 있으니 정부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소비자단체, '헛가루 분유' 제조사와 수입업체 대상 소송 제기

수입조제분유에서 검출된 금속성 물질 파문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욱, 이하 소시모)은 지난 3월 17일 금속성 이물질이 혼입돼 회수조치된 수입조제분유 '엔파밀리필'의 제조사인 미국 미드존슨사에 소송제기 방침을 밝히고, 공개질의서를 냈다.

소시모는 지난 3월 13일 관련 전문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드존슨과 국내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에게 내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미드존슨사가 지난 3월 13일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문과 관련, 소시모는 공개질의서를 내고 △'비독성 금속조성'이라고 한 엔파밀리필에서 검출된 이물질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 △의학적으로 유아의 인체에 무해함이 밝혀졌다고 한 미국 유명 의료센터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의학적 검토를 한 것인지를 밝힐 것 △이물질이 어떠한 과정으로 제품에 혼입되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소송청구권을 위임한 피해 소비자는 230여 명이라고 소시모는 밝혔는데,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엔파밀리필은 수입조제분유 중에서도 모유에 가까운 성분 및 시력강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등 인기를 누렸던 제품이다.

## ■ 농지내 축사 신축 더 어려워졌다

축사설치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농지법이 시·군에서 정하는 조례에 발목이 잡혀 오히려 농지에 축사 설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림부는 지난 1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에 축사설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3ha까지 신고로 전용이 가능토록 하고, 진흥 지역안에서는 3ha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정착 지자체에서는 농지에 축사 신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축사 설치의 건폐율을 20%로까지 축소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양축가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농지에서의 축사 설치를 완화해 주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지방정부는 오히려 건폐율을 강화함으로써 축사 설치를 더 어렵게 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엇박자가 축산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美 광우병 전방위 대응

미국에서 최근 BSE(소해면상뇌증)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축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올해 4월달로 반입이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광우병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국회의원들과 축산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김영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참석했으며 생산자단체에서는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과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미국 내에서 BSE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되며 이번 상황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와 결단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전국농업경영인출신 축협조합장 20여명은 도드람양돈조합에서 회의를 갖고 BSE가 발생된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정부가 반입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 작년 축산물 시장 외산 '폭증'

05년도에 수입된 쇠고기는 냉장육이 전년대비 61% 급증한 1만9천507톤(갈비 4,715, 등심 870, 목심 5,907, 사태 257, 설도 836, 안심 1,323, 앞다리 1,308, 양지 1,013, 우둔 1,556, 채끝 228, 기타 1,494)이 수입됐으며 국가별로는 호주 1만8천610톤, 뉴질랜드 812톤, 멕시코 812톤 순으로 수입됐다. 부위별로는 기타부위 937톤, 양지 457톤, 안심 446톤, 설도 423톤, 우둔 291톤, 앞다리 170톤 등의 순으로 증가됐다. 이는 미산 쇠고기에 대한 대체수요가 곡물사육한 호주산을 위주로 형성됐으며, 대형할인마트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수입육 중간유통과정이 대폭 생략되고 번거로운 냉동과정 없이 시기별 수요량을 그때그때 충족시키는 형태의 냉장육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쇠고기 시장의 86%를 점유하고 있는 냉동육은 12만3천94톤(갈비 35,985, 등심 1,788, 목심 22,656, 사태 7,832, 설도 3,457, 안심 914, 앞다리 12,959, 양지

10,259, 우둔 4,566, 채끝 463, 기타 22,215)이 수입됐으며 국가별로는 호주 8만2천773톤, 뉴질랜드 3만8천180톤, 멕시코 2천141톤 순으로 수입됐다.

### ■ 낙농가 '품질관리 시스템' 본격가동

젖소 사육농가 HACCP 시범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한·미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품질 차별화·축산물 안전성 확립 시스템 보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농진청은 젖소 사육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관리 시스템(HACCP)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2월 축산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중심으로 HACCP추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한편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과 합동으로 경기 포천(3월2일~3일)·경남의령(3월 9일~10일), 경북구미(3월16일~17일)에서 순회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관리시스템은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예방 또는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 표준시스템으로 선진국의 경우 HACCP 개념하의 우수농장 관리기준(GAP)에 의하여 축산물의 위생품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 KRA 특별적립금 843억 편성

KRA(회장 이우재)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부문에 특별적립금 843억원, 기부금 94억4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키로 확정했다.

KRA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경마수익금의 60%를 출연하는 특별적립금 규모와 예산에서 편성해 운영하는 기부금 운영계획 그리고 임직원 봉사활동계획 등 올해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전체 기부금 94억4000만원중 76억원을 사회복

지 분야와 '농촌, 생명, 자연'으로 대표되는 사회 공익분야에 지원함으로써 공익부문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KRA는 이와 관련 오는 4월중 공모를 통해 기부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 기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 국내산마 경매 최고가 경신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김순건) 주관으로 KRA 제주경주마 육성목장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150여명의 마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내산마 경매에서 역대 경매 최고가가 갱신했다.

2세 수말로 8700만원을 기록한 '디디미'와 '원샤프레미'의 자마가 그 주인공. 2~3세마 전체 97마리가 상장돼 79마리가 낙찰돼 81.4%의 낙찰률을 보인 이번 경매에는 KRA가 상장한 58마리 중 54마리가 낙찰돼 93.1%의 낙찰률을 보였다. 생산농가에서 상장한 말은 39마리 중 25마리가 낙찰돼 64.1%의 낙찰률을 나타냈다. 평균 낙찰가격은 3170만원을 기록했다.

###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1학기 장학금 21억 지원

농림부와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이사장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은 올해 1학기 영농희망자와 성적우수 장학생 등 2171명의 농촌희망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21억원을 1차로 지원했다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영농희망장학금은 농과계대 졸업후 농사를 짓고자 하는 학생에게 자금심을 심어주고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대상은 농과대 2학년생 이상중 졸업후 영농종사희망자이며 지원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액의 80%수준인 학기당 120만원 이내이다.

선발방법은 학교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할당해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재단의 올 1학기 장학생 지원계획은 영농희망장학생 1,228명, 성적우수장학생 2,000명 등 3,228명이다.